

## 제2절 정시성 정보

- ❖ ‘정시성’이란 항공사가 사전에 계획한 운항스케줄에 따라 실제로 항공기 운항이 정해진 출발 시간이나 도착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이는 항공교통 이용자 및 화물이 정해진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의미함.
  - ▶ 본 보고서에서는 연간 발생하는 국내선<sup>1)</sup> 정기 여객기의 출·도착 지연 및 결항 정보와 국제선 정기 여객기의 출·도착 지연 및 결항 정보를 제공함.
  - ▶ 국토교통부의 항공통계 작성 매뉴얼에서 지연은 비행계획서상의 운항시간에서 이착륙시간을 기준으로 국내선은 30분 초과, 국제선은 1시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결항이란 운항이 취소된 경우, 회항으로 인하여 출발공항에 최종 착륙한 경우 또는 교체공항에 최종 착륙한 경우를 말함.
  - ▶ 각 나라마다 운항 지연이 되는 시간은 상이하고, 외국적항공사의 경우 국내 공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운항만 집계하기 때문에 본 보고서의 정시성 통계는 다른 나라에서 발표하는 지연율 또는 결항률과는 상이 할 수 있음.

### 1. 지연 현황

#### 가. 국적항공사(국내선)

- ❖ 2016년 국내선 지연은 총 35,096건으로 운항횟수의 약 18.64%를 차지함.
  - ▶ 대형항공사 지연율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비해 약 7.12%p 높게 나타남.
  - ▶ 저비용항공사 중 진에어의 지연율은 약 26.95%로 타 항공사에 비해 높은 지연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에어부산의 지연율은 약 18.27%로 6개 저비용항공사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1) 출도착 운항횟수의 평균을 활용함.

〈표 1-5〉 국적항공사 국내선 지연 현황

단위 : 편, %

구분		운항횟수	지연횟수	지연율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	53,342	7,144	13.39
	아시아나항공	35,510	7,285	20.51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	23,049	4,211	18.27
	에어서울	637	161	25.27
	이스타항공	15,856	3,438	21.68
	제주항공	25,430	4,882	19.20
	진에어	18,864	5,084	26.95
	티웨이항공	15,605	2,893	18.54
합계		188,293	35,096	18.64

주 : 국내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2016년 항공통계,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 나. 국적항공사(국제선)

- ❖ 2016년 국적항공사 국제선 지연은 총 12,756건으로 실제 운항횟수의 약 5.16%를 차지하고 있음.
  - ▶ 대형항공사 국제선의 경우, 지연율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비해 약 2.71%p 높게 나타났음.
  - ▶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지연율은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이 각각 약 6.9%, 약 6.59%로 타 저비용항공사에 비해 높은 지연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1-6〉 국적항공사 국제선 지연 현황

단위 : 편, %

구분		운항횟수	지연횟수	지연율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	94,972	3,841	4.04
	아시아나항공	68,284	4,612	6.75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	13,714	342	2.49
	에어서울	978	26	2.66
	이스타항공	12,399	855	6.90
	제주항공	24,516	1,407	5.74
	진에어	20,763	925	4.46
	티웨이항공	11,357	748	6.59
합계		246,983	12,756	5.16

주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2016년 항공통계,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다. 외국적항공사(국제선)

- ❖ 2016년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외국적항공사의 평균 지연율은 약 6.84% 수준임.
  - ▶ 외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운항횟수를 기록한 항공사는 중국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 및 중국국제항공 등 중국 국적항공사로, 이들의 지연율은 각각 약 13.26%, 약 6.72%, 약 6.66%이며, 이는 평균 약 5.16%의 지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 국적항공사에 비해 높은 수준임.
  - ▶ 이는 중국 내 항공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공항 및 항로혼잡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 외국적항공사의 지연율은 <표 1-7>과 같음.

〈표 1-7〉 외국적항공사 지연 현황

단위 : 편, %

구분	운항횟수	지연횟수	지연율
KLM네덜란드항공	645	18	2.79
MIAT몽골항공	715	68	9.51
길상항공(준야오)	1,136	46	4.05
델타항공	1,339	68	5.08

구분	운항횟수	지연횟수	지연율
드래곤에어	1,049	49	4.67
라오항공	920	15	1.63
럭키에어	217	4	1.84
루프트한자항공	1,206	56	4.64
만다린항공	846	48	5.67
말레이시아항공	732	38	5.19
베트남항공	5,086	216	4.25
부흥항공	370	32	8.65
브이에어	326	8	2.45
비엣젯항공	1,514	44	2.91
사천항공	693	60	8.66
사할린스키항공	2,237	26	1.16
산둥항공	5,014	259	5.17
세부퍼시픽	2,248	194	8.63
스카이웍스아시아	254	11	4.33
스쿠트항공	314	11	3.50
시베리아항공	456	19	4.17
실크에어	2	0	0.00
심천항공	2,054	348	16.94
싱가포르항공	3,656	124	3.39
아메리칸항공	713	106	14.87
아스타나항공	418	22	5.26
아스트로항공	2	1	50.00
아에로폴로트항공	728	49	6.73
알리탈리아	418	16	3.83
야쿠티아항공	98	7	7.14
에미레이트항공사	732	9	1.23
에바항공	3,137	97	3.09
에어마카오항공	1,508	46	3.05
에어아시아 엑스	1,882	73	3.88
에어아시아필리핀	3,205	350	10.92
에어캐나다	1,062	130	12.24
에어프랑스	720	67	9.31
에티하드항공	732	15	2.05
영국항공	712	33	4.63

구분	운항횟수	지연횟수	지연율
오케이항공	1,589	89	5.60
우즈베키스탄	260	21	8.08
유나이티드	1,452	72	4.96
유니항공	304	1	0.33
이디오피안 항공	314	38	12.10
인도네시아	1,330	24	1.80
인도항공	416	68	16.35
일본항공	4,387	52	1.19
전일본공수	2,194	18	0.82
젯스타퍼시픽	4	1	25.00
중국국제항공	10,869	724	6.66
중국남방항공	17,152	1,153	6.72
중국동방항공	18,134	2,404	13.26
중국상하이항공	2,380	378	15.88
중국신지양항공	64	7	10.94
중국천진항공	999	80	8.01
중국춘추항공	4,067	268	6.59
중국캐피탈항공	338	4	1.18
중국하문항공	1,264	109	8.62
중화항공	3,773	188	4.98
체코항공	357	27	7.56
카타르항공	732	12	1.64
캄보디아앙코르항공	238	45	18.91
캐세이퍼시픽	4,230	226	5.34
타이거에어	232	5	2.16
타이에어아시아엑스	982	35	3.56
태국항공	3,448	165	4.79
터키항공	1,122	50	4.46
폴란드항공	63	3	4.76
피치항공	4,862	325	6.68
핀란드항공	712	20	2.81
필리핀항공	4,448	404	9.08
하와이안에어	521	16	3.07
하이난항공	243	34	13.99
홍콩익스프레스	2,854	97	3.40

구분	운항횟수	지연횟수	지연율
홍콩중부항공	32	1	3.13
합 계	145,462	9,947	6.84

주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2016년 항공통계,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라. 최근 3년간 국제선 항공사별 지연율

- ❖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의 지연율은 <표 1-8>과 같음.
  - ▶ 우리나라 국적 대형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3년간 국제선 지연율은 각각 약 2.8%, 약 5.2% 수준임.
  - ▶ 우리나라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최근 3년간 평균 지연율은 에어부산이 약 2.09%로 가장 낮은 반면, 이스타항공이 약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외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운항횟수를 기록한 중국동방항공과 중국남방항공, 중국국제항공의 지연율은 2014년 각각 약 10.13%, 약 5.53%, 약 4.42%에서 2016년 각각 약 13.26%, 약 6.72%, 약 6.66%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1-8> 최근 3년간 국제선 항공사별 지연 현황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KLM네덜란드항공	3.39	6.43	2.79
MIAT몽골항공	6.68	11.15	9.51
가루다인도네시아	3.55	2.67	1.80
길상항공(준야오)	1.32	2.86	4.05
다이나믹항공	12.73		
대한항공	2.02	2.34	4.04
델타항공	7.03	6.50	5.08
드래곤에어	3.65	2.84	4.67
라오항공	2.18	1.31	1.63
럭키에어		3.85	1.84
루프트한자항공	2.17	3.01	4.64
만다린항공	4.56	4.04	5.67
말레이시아항공	2.75	8.22	5.19
미얀마항공	0.00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베트남항공	2.19	3.02	4.25
부흥항공	2.14	2.07	8.65
브이에어		0.00	2.45
비엣젯항공	2.03	4.09	2.91
비즈니스항공	6.92	3.33	
사천항공	8.81	6.04	8.66
사할린스키항공	4.49	1.94	1.16
산동항공	3.77	4.14	5.17
세부퍼시픽	6.24	7.06	8.63
스카이윙스아시아	6.21	7.30	4.33
스쿠트항공	4.15	4.47	3.50
스타플라이어	0.00		
시베리아항공	0.00	2.36	4.17
실크에어			0.00
심천항공	12.67	12.22	16.94
싱가포르항공	2.54	2.72	3.39
아메리칸항공	9.47	9.79	14.87
아스타나항공	21.48	6.15	5.26
아스트로항공			50.00
아시아나항공	4.06	4.78	6.75
아시아아틀란틱항공	13.89	6.08	6.73
아에로폴로트항공	3.41	4.50	3.83
야쿠티아항공			7.14
에미레이트항공사	1.78	1.23	1.23
에바항공	2.82	5.86	3.09
에어마카오항공	4.97	2.13	3.05
에어부산	1.88	1.89	2.49
에어서울			2.66
에어아시아 엑스	5.81	3.11	3.88
에어아시아재팬(JW)	3.04	1.72	
에어아시아필리핀	8.09	15.01	10.92
에어칼린	0.00		
에어캐나다	6.23	5.11	12.24
에어프랑스	3.75	3.61	9.31
에티하드항공	4.93	2.60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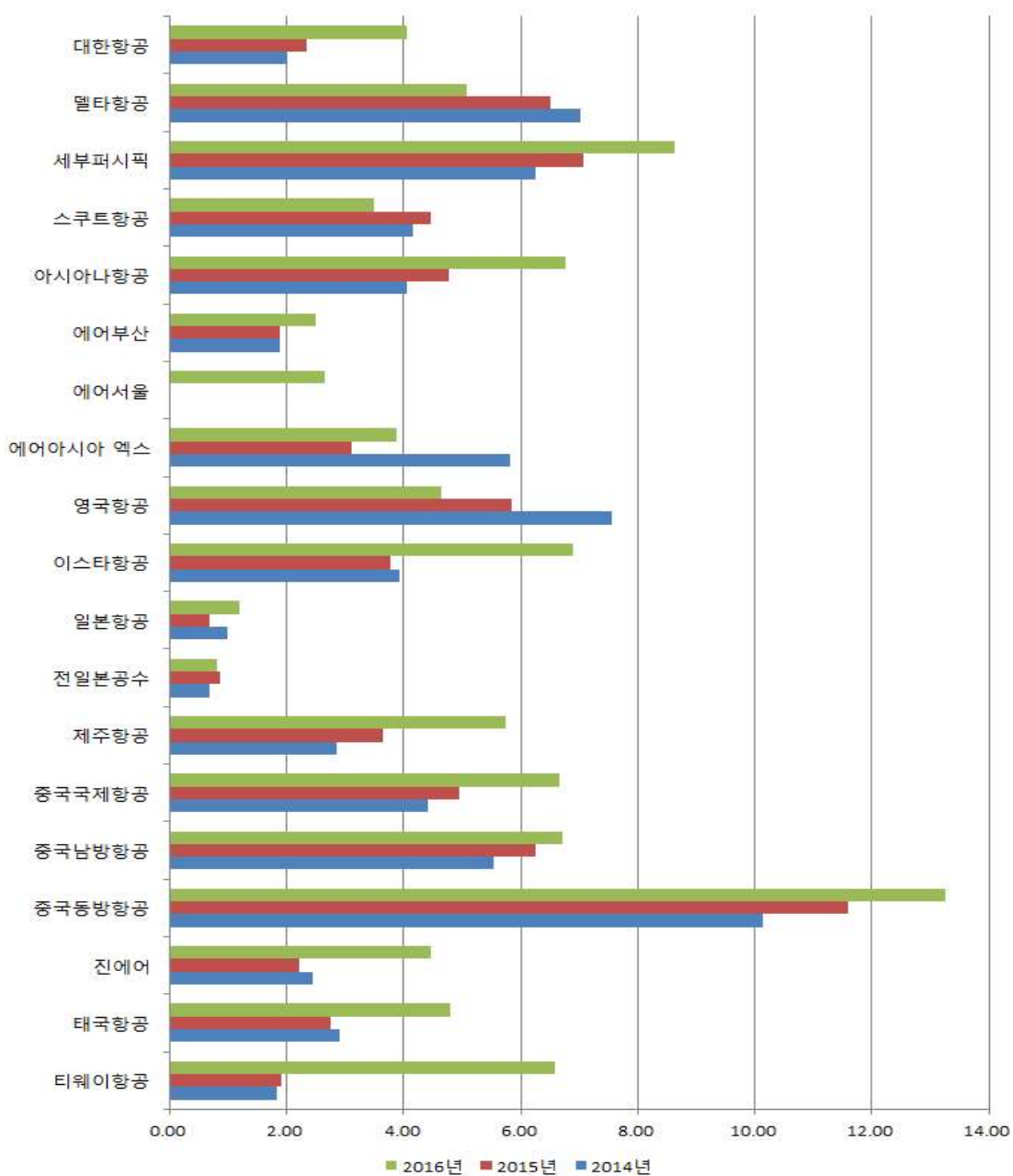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영국항공	7.57	5.83	4.63
오케이항공	11.63	12.31	5.60
우즈베키스탄	7.25	4.49	8.08
원동항공	6.67		
유나이티드	6.69	4.53	4.96
유니항공		0.00	0.33
이디오피안 항공	20.16	9.09	12.10
이스타항공	3.92	3.76	6.90
인도항공	11.00	12.44	16.35
일본항공	0.98	0.68	1.19
전일본공수	0.69	0.87	0.82
제주항공	2.86	3.65	5.74
젯스타퍼시픽			25.00
중국국제항공	4.42	4.95	6.66
중국남방항공	5.53	6.26	6.72
중국동방항공	10.13	11.60	13.26
중국상하이항공	21.60	14.77	15.88
중국신지앙항공			10.94
중국천진항공	14.66	7.77	8.01
중국춘추항공	7.33	6.01	6.59
중국캐피탈항공	0.00	13.56	1.18
중국하문항공	15.38	11.83	8.62
중화항공	3.37	4.91	4.98
진에어	2.45	2.22	4.46
체코항공	2.14	3.72	7.56
카타르항공	3.01	1.10	1.64
캄보디아앙코르항공		31.25	18.91
캐세이퍼시픽	7.61	7.47	5.34
타이거에어			2.16
타이에어아시아엑스	3.91	4.04	3.56
태국항공	2.90	2.74	4.79
터키항공	3.45	5.92	4.46
티웨이항공	1.84	1.89	6.59
폴란드항공			4.76
피치항공	3.40	5.19	6.68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핀란드항공	3.16	2.65	2.81
필리핀항공	8.18	6.94	9.08
하와이안에어	3.05	2.87	3.07
하이난항공			13.99
홍콩익스프레스	5.73	3.24	3.40
홍콩중부항공			3.13

주1 : 음영부분은 국적항공사

주2 : 해당 연도에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 빈칸처리하며, 지연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함.



<그림 1-8> 최근 3년간 국제선 주요 항공사별 지연 현황

## 2. 결항 현황

### 가. 국적항공사(국내선)

- ❖ 2016년 국내선 국적항공사 결항 건수는 총 2,997건으로 운항계획 횟수의 약 1.57%를 차지함.
  - ▶ 대형항공사의 결항률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약 0.02%p 높게 나타남.
  - ▶ 저비용항공사의 평균 결항률은 약 1.48%로 대형항공사보다 낮게 나타나며, 에어서울이 약 0.31%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반면, 이스타항공이 약 1.8%로 국적항공사 중 국내선 결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1-9〉 국적항공사 국내선 결항 현황

단위 : 편, %

구분		운항계획	결항횟수	결항률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	54,248	906	1.67
	아시아나항공	36,107	597	1.65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	23,365	316	1.35
	에어서울	639	2	0.31
	이스타항공	16,146	290	1.80
	제주항공	25,781	351	1.36
	진에어	19,189	325	1.69
	티웨이항공	15,816	211	1.33
합계		191,290	2,997	1.57

주 : 국내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2016년 항공통계,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 나. 국적항공사(국제선)

- ❖ 2016년 국적항공사 국제선 결항은 총 305건으로 운항계획 횟수의 약 0.12%를 차지하고 있음.

- ❖ 대형항공사 국제선의 경우, 결항률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약 0.02%p 높게 나타났음.
- ▶ 저비용항공사 국제선의 평균 결항률은 약 0.18%로, 약 0.27%, 약 0.20%, 약 0.19%를 보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제주항공이 저비용항공사 평균보다 높은 결항률을 보임.

〈표 1-10〉 국적항공사 국제선 결항 현황

단위 : 편, %

구분		운항계획	결항횟수	결항률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	95,067	95	0.10
	아시아나항공	68,342	58	0.08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	13,751	37	0.27
	에어서울	980	2	0.20
	이스타항공	12,420	21	0.17
	제주항공	24,562	46	0.19
	진에어	20,791	28	0.13
	티웨이항공	11,375	18	0.16
합계		247,288	305	0.12

주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2016년 항공통계,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 다. 외국적항공사(국제선)

- ❖ 2016년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외국적항공사의 평균 결항률은 약 0.39% 수준임.
- ▶ 외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운항횟수를 기록한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중국국제항공의 결항률은 각각 약 0.35%, 약 0.61%, 약 0.44%로 외국적항공사 평균 결항률 약 0.39% 보다 높게 나타남.
- ❖ 외국적항공사의 결항률은 <표 1-11>과 같음.

〈표 1-11〉 외국적항공사 결항 현황

단위 : 편, %

구분	운항계획	결항횟수	결항률
KLM네덜란드항공	645	0	0.00

구분	운항계획	결항횟수	결항률
MIAT몽골항공	715	0	0.00
길상항공(준야오)	1,153	17	1.47
델타항공	1,346	7	0.52
드래곤에어	1,056	7	0.66
라오항공	920	0	0.00
럭키에어	219	2	0.91
루프트한자항공	1,210	4	0.33
만다린항공	853	7	0.82
말레이시아항공	732	0	0.00
베트남항공	5,088	2	0.04
부흥항공	374	4	1.07
브이에어	334	8	2.40
비엣젯항공	1,514	0	0.00
사천항공	703	10	1.42
사할린스키항공	2,237	0	0.00
산둥항공	5,043	29	0.58
세부퍼시픽	2,255	7	0.31
스카이웍스아시아	254	0	0.00
스쿠트항공	314	0	0.00
시베리아항공	456	0	0.00
실크에어	2	0	0.00
심천항공	2,058	4	0.19
싱가포르항공	3,656	0	0.00
아메리칸항공	714	1	0.14
아스타나항공	418	0	0.00
아스트로항공	2	0	0.00
아에로폴로트항공	728	0	0.00
알리탈리아	418	0	0.00
야쿠티아항공	98	0	0.00
에미레이트항공사	732	0	0.00
에바항공	3,144	7	0.22
에어마카오항공	1,512	4	0.26
에어아시아 엑스	1,882	0	0.00
에어아시아필리핀	3,208	3	0.09
에어캐나다	1,062	0	0.00
에어프랑스	720	0	0.00

구분	운항계획	결항횟수	결항률
에티하드항공	732	0	0.00
영국항공	712	0	0.00
오케이항공	1,616	27	1.67
우즈베키스탄	260	0	0.00
유나이티드	1,457	5	0.34
유니항공	304	0	0.00
이디오피안 항공	316	2	0.63
인도네시아	1,330	0	0.00
인도항공	418	2	0.48
일본항공	4,389	2	0.05
전일본공수	2,195	1	0.05
젯스타퍼시픽	4	0	0.00
중국국제항공	10,917	48	0.44
중국남방항공	17,258	106	0.61
중국동방항공	18,197	63	0.35
중국상하이항공	2,396	16	0.67
중국신지앙항공	64	0	0.00
중국천진항공	1,001	2	0.20
중국춘추항공	4,115	48	1.17
중국캐피탈항공	344	6	1.74
중국하문항공	1,271	7	0.55
중화항공	3,788	15	0.40
체코항공	374	17	4.55
카타르항공	732	0	0.00
캄보디아앙코르항공	242	4	1.65
캐세이퍼시픽	4,242	12	0.28
타이거에어	233	1	0.43
타이에어아시아엑스	982	0	0.00
태국항공	3,450	2	0.06
터키항공	1,131	9	0.80
폴란드항공	63	0	0.00
피치항공	4,879	17	0.35
핀란드항공	720	8	1.11
필리핀항공	4,452	4	0.09
하와이안에어	522	1	0.19

구분	운항계획	결항횟수	결항률
하이난항공	244	1	0.41
홍콩익스프레스	2,868	14	0.49
홍콩중부항공	32	0	0.00
합 계	146,025	563	0.39

주 : 국제선(출발+도착), 운항횟수(여객기, 정기)  
 자료 : 2016년 항공통계,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통계

### 라. 최근 3년간 국제선 항공사별 결항률

- ❖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의 결항률은 <표 1-12>와 같음.
  - ▶ 우리나라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은 2014년 약 0.08%에서 2016년 0.1%로 결항률이 증가한 반면, 아시아나항공의 결항률은 2014년 약 0.1%, 약 0.08%로 다소 감소함.
  - ▶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의 최근 3년간 평균 결항률은 약 0.19%이며, 진에어의 최근 3년간 평균 결항률이 약 0.13%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에어부산의 최근 3년간 평균 결항률이 약 0.3%를 기록하여 다소 높게 나타남.
  - ▶ 외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운항횟수를 기록한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과 중국국제항공의 결항률은 2014년 각각 약 0.28%, 약 0.22%, 약 0.22%이었으나 2016년 각각 약 0.35%, 약 0.61%, 약 0.44%로 높게 나타났음.

<표 1-12> 최근 3년간 국제선 항공사별 결항 현황

단위 :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KLM네덜란드항공	0.16	0.51	0.00
MIAT몽골항공	0.00	0.00	0.00
가루다인도네시아	0.00	0.15	0.00
길상항공(준야오)	1.62	0.42	1.47
다이나믹항공	8.33		
대한항공	0.08	0.10	0.10
델타항공	0.18	0.22	0.52
드래곤에어	0.74	0.20	0.66
라오항공	0.00	0.00	0.00
럭키에어		0.00	0.91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루프트한자항공	0.43	0.33	0.33
만다린항공	0.00	0.00	0.82
말레이시아항공	0.27	0.00	0.00
미얀마항공	0.00		
베트남항공	0.23	0.04	0.04
부흥항공	0.00	0.00	1.07
브이에어		2.15	2.40
비엣젯항공	0.51	0.49	0.00
비즈니스항공	0.36	16.67	
사천항공	0.00	0.00	1.42
사할린스키항공	1.01	0.37	0.00
산둥항공	0.81	0.61	0.58
세부퍼시픽	0.46	0.08	0.31
스카이웍스아시아	0.00	0.52	0.00
스쿠트항공	0.00	0.00	0.00
스타플라이어	0.55		
시베리아항공	14.29	0.00	0.00
실크에어			0.00
심천항공	0.15	0.00	0.19
싱가포르항공	0.00	0.00	0.00
아메리칸항공	0.55	0.56	0.14
아스타나항공	0.00	0.00	0.00
아스트로항공			0.00
아시아나항공	0.10	0.12	0.08
아시아아틀란틱항공	0.00	0.00	0.00
아에로폴로트항공	0.00	0.00	0.00
야쿠티아항공			0.00
에미레이트항공사	0.00	0.00	0.00
에바항공	0.00	0.00	0.22
에어마카오항공	0.16	0.00	0.26
에어부산	0.31	0.33	0.27
에어서울			0.20
에어아시아 엑스	0.00	0.27	0.00
에어아시아재팬(JW)	0.00	0.00	
에어아시아필리핀	0.65	0.21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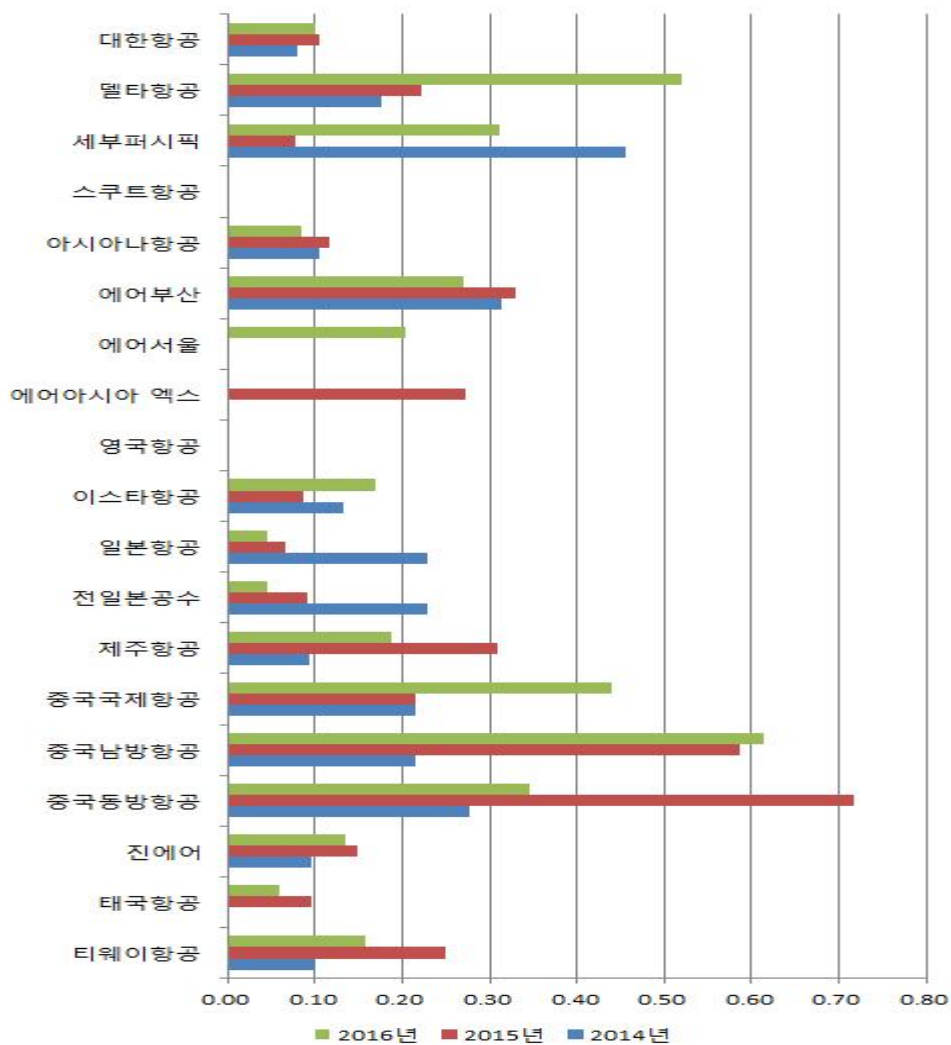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에어칼린	0.00		
에어캐나다	0.00	0.00	0.00
에어프랑스	0.00	0.00	0.00
에티하드항공	0.00	0.00	0.00
영국항공	0.00	0.00	0.00
오케이항공	1.37	0.83	1.67
우즈베키스탄	0.96	0.00	0.00
원동항공	0.00		
유나이티드	0.32	0.86	0.34
유니항공		0.00	0.00
이디오피안 항공	3.93	0.00	0.63
이스타항공	0.13	0.09	0.17
인도항공	1.68	0.49	0.48
일본항공	0.23	0.07	0.05
전일본공수	0.23	0.09	0.05
제주항공	0.09	0.31	0.19
젯스타퍼시픽			0.00
중국국제항공	0.22	0.21	0.44
중국남방항공	0.22	0.59	0.61
중국동방항공	0.28	0.72	0.35
중국상하이항공	0.50	0.72	0.67
중국신지앙항공			0.00
중국천진항공	0.00	0.00	0.20
중국춘추항공	0.82	0.66	1.17
중국캐피탈항공	0.00	0.42	1.74
중국하문항공	0.63	0.27	0.55
중화항공	0.15	0.59	0.40
진에어	0.10	0.15	0.13
체코항공	0.00	0.25	4.55
카타르항공	0.00	0.00	0.00
캄보디아양코르항공		0.00	1.65
캐세이퍼시픽	0.02	0.05	0.28
타이거에어			0.43
타이에어아시아엑스	0.00	0.00	0.00
태국항공	0.00	0.10	0.06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터키항공	0.00	0.53	0.80
티웨이항공	0.10	0.25	0.16
폴란드항공			0.00
피치항공	0.28	0.29	0.35
핀란드항공	0.32	0.28	1.11
필리핀항공	0.41	0.14	0.09
하와이안에어	0.00	0.00	0.19
하이난항공			0.41
홍콩익스프레스	0.00	0.19	0.49
홍콩중부항공			0.00

주 : 음영부분은 국적항공사, 운항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기입

주2 : 해당 연도에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 빈칸처리하며, 결항이 없는 경우 0으로 표기함.



<그림 1-9> 최근 3년간 국제선 주요 항공사별 결항 현황